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1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하이리움산업, 현대차 직영 수소충전소 전문정비업체 등록 (‘26.9.30, 가스신문)

- 하이리움산업이 9월 16일 현대자동차 구매협력사 등록을 완료하고 현대차 직영 수소충전소의 전문 정비업체로 선정됨
- 하이리움산업은 현대차가 직접 운영하는 8개 수소충전소 중 H부산과 H인천의 충전설비 전체에 대한 점검·유지보수를 담당함
- 회사는 수소충전소 5개를 구축했고 내년까지 3개를 추가해 8개로 늘릴 계획이며 영광·보령 수소생산기지과 연계해 생산부터 충전소 정비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함

○ [단독] 포스코 조강 전량 수소환원제철 전환 땀…수소 생산에만 국내 1년 전력의 35% (‘26.9.30, 철강금속신문)

- 포스코의 현재 연간 조강 3,500만톤을 전량 수소환원제철로 생산하고 필요한 수소 약 350만톤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수전해에만 연간 192.5TWh가 필요함
- 이는 2025년 국내 전력판매량 549.4TWh의 약 35%이며 태양광 단일 전원으로 환산하면 약 140GW, 해상풍력은 87.5GW, 원전은 24.5GW 설비에 해당함
- 수소 생산용 전력 외에도 전기로 가동 전력이 늘고 고로 폐쇄로 부생가스 자가발전이 줄어 제철소의 외부 무탄소전력 조달 필요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

- 포스코의 중장기 로드맵은 수소환원제철이 전체 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구조로, 실제 전력수요는 전환 비중·국내외 수소 조달방식·설비 전환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
- "대전 철도정책 심의기구도 안했다"…수소트램 결정, 누가 했나 ('26.9.29, 연합뉴스)
 - 대전참여연대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급전방식이 배터리에서 수소트램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철도정책위원회 심의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함
 - 2023년 11월 대전시는 별도 평가위원 7명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소연료전지 방식을 선정했으며, 철도정책위원회는 한 달 뒤 결정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남
 - 대전참여연대와 전문가들은 수소트램 전환 과정의 평가위원 구성과 자료, 선정 근거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급전방식 변경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함
- 에기평, 지역 수소 밸류체인 고도화 시동 ('26.9.30, 투데이에너지)
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포항시가 9월 29일 2026 포항 국제 수소 연료전지 포럼을 열어 청정수소 생산부터 저장·운송·활용까지 지역 전주기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함
 - 세부 발표에서는 산업 탈탄소용 그린수소, 메탄 열분해, 고온수전해 원가절감, 저온형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가 다뤄졌으며 에기평은 포항 수소특화단지와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임

□ 해외

○ [덴마크] 덴마크, 수소배관 운영지원 8억5,000만달러 증액... 용량예약 조건도 완화 ('26.9.30, Hydrogen Insight)

- 덴마크 정부가 국가 수소배관망의 운영지원금을 56억크로네, 약 8억5,000만달러 늘려 총 165억크로네(약 2조3,600억원)로 확대하는 정치권 합의를 마련함
- 배관망은 2030년 말 가동이 예상되며 이후 30년간 운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임
- 국영 배관사업자 Energinet의 최소 0.5GW 용량예약 기준은 12월까지 유지하되 예약을 연말 확정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됨
- 생산사의 용량예약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에서 규제 승인을 전제로 2027년 11월 1일로 연기되며, 사업자는 2027년 말까지 예약용량 중 최소 0.1GW에 대한 반환불가 보증을 제출해야 함
- 독일 정부는 유럽수소은행을 통한 13억 유로(약 2조원) 규모 보조사업에서 덴마크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, 해당 프로젝트는 배관망을 통해 독일 수요처에 수소를 공급할 예정임
- 덴마크 정부가 배관망 사업에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도 2028년 1월 1일까지 4억1740만크로네(약 597억원)에서 21억크로네(약 3,000억원)로 상향됨
- Energinet은 독일 Gasunie Deutschland와 EU 유럽연결시설의 금융지원을 공동 신청할 계획임

- [스웨덴] HYDS, 예테보리항 10MW 그린수소 사업 FEED 계약 체결 ('26.9.29, Fuel Cells Works)
 - 노르웨이 수소개발사 HYDS가 스웨덴 예테보리항 그린수소 사업의 기본설계 수행사로 Moreld Apply를 선정함
 - HYDS는 2026년 1월 노르웨이 국영 재생에너지 개발사 Statkraft로부터 예테보리 수소사업을 인수함
 - 인수 범위에는 환경허가와 항만 임대계약, 외부금융이 포함됨
 - 사업은 5~10MW 수전해 설비로 하루 2~4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중대형 운송과 해운 부문에 공급할 계획임
 - HYDS는 2027년 상반기 최종투자결정과 2029년 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
 - Moreld Apply는 2025년 말 HYDS와 다른 20MW급 사업인 KaupEx와 HyFuel의 설계·조달·시공 파트너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함
 - 예테보리항에는 이미 Hydri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있어 신규 수전해 설비는 기존 유통인프라에 생산능력을 추가하게 됨